

◀하나님! 나의 하나님▶ 아들이, 지는꽃의 힘을 아느냐

-안도현의 '아들이, 지는꽃의 힘을 아느냐' 중에서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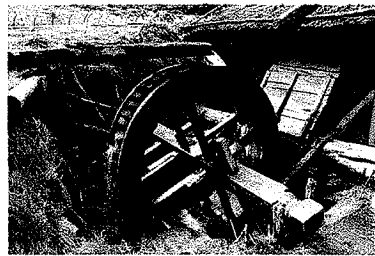
아들이,  
 내가 옥이 땀방 떨어진 석류꽃을 몇개 주워 들고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다.  
 네 할머니께서 물끄러미 나를 보시더니 무슨 청승이냐는 듯 한마디 던지셨지.  
 꽃이 그냥 지는 줄 아냐? 지는 꽃이 있어야 피는 꽃도 있는 게야.  
 네 할머니는 지는 꽃 때문에 석류알이 굵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였다.  
 꽃 지는 것 보며 공연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질 필요가 뭐 있겠느냐며 웃으셨지.

...  
 지난 여름 땅으로 떨어져간 수백송이의 꽃들, 그 지는 꽃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열매가 맺힌 거란다.  
 아들이, 아직 너는 어려서 언제든 화사하게 피는 꽃이 되고 싶겠지.  
 하지만 지는 꽃을 잊지 말기 바란다.

....  
 그리하여 이 가을에는 부디 그 앞에서 겸손해지기 바란다.  
 언젠가 네가 학교에 갔다가 흠뻑 두들겨 맞고 돌아온 적이 있었다.  
 한쪽 눈두덩이 시퍼렇게 부어오른 것을 보고 나는 그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른다.  
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지.  
 “너도 그 자식 한대 세계 때려주지 그랬어?”  
 그때 네 할머니가 손을 내저으셨지.  
 “아니다, 굳이 그럴 거 없다. 지는 게 나중에는 이기는 거란다” .  
 그때 할머니의 그 말씀을 한참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야 나도 조금 이해하게 되었다.

아들이,  
 대부분 사람들은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지. 하지만 그 말을 전폭적으로 믿지는 마라. 세상에는 승리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이 많고, 실패한 사람 때문에 승리한 사람이 두드러져 보이는 법이란다. 지는 꽃이 있어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말이다. 그렇다고 너한테 늘 실패하는 인간이 되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. 실패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. 실패 앞에서 기죽지 않을 용기도 때로는 필요하다.

아들이, 네 할머니가 누구시냐?  
 계단을 오를 때면 몇 걸음 못가 숨을 내쉬어야 하고, 이제는 꽃으로 따진다면 바로 지는 꽃이 아니겠느냐.  
 그 지는 꽃 때문에 이 아버지는 아비대로 세상을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고,  
 또 너의 키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 가는 게 아니겠느냐?



◀그때 그랬지▶ 물레방아  
 디딜방아나 물레방아로 곡식을 빻던 시절, 동네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물레방아는 허 생원이 성 서방네 처녀와 사랑을 이루었던 메밀꽃 필 무렵처럼 동네 처녀 총각들의 설레이던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. ‘물레방아 도는 내력’ ‘고향의 물레방아’ 등 가요에도 물레방아는 마음의 향수였습니다. 세월은 물 따라 흘렀어도 추억은 제자리서 물레방아처럼 돌고 있습니다

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	2004년 교회생활: “바보 같은 교회” <b>갈보리교회</b> Calvary Presbyterian Church	교회생활지침 누가 10:37 *자원함 -성김과 봉사 *의명성 -명예
제6권 25 호	기초성경공부이수, 정장으로 예배, 남 이야기 금지	2004년6월20일
☎520-9464/369-5077, 71 Khyber Pass Rd.(The Church of Holy Sepulchre) calvary.byus.net		

주 여!

- 미셸 파스트 -



주여,  
 서로 지치기만 하고 마음만 상하는  
 또 아무런 소득도 없는 싸움을 피하게 하시고  
 남의 이목을 끌려고 공연히 자신을 어리석게 하는  
 옳지 않은 격분을 멀리하게 하소서.  
 다른 사람을 짓누르면서 언제나 그들보다 나아지려는  
 교만한 마음을 허락하지 마시고

내 얼굴에서 어둡고 위압적인 거친 표정을 씻어 없애주소서.  
 주여, 그보다도 물결이 천천히 모래사장을 덮어씌우듯이  
 내 일과를 차분히 채우게 하소서.  
 조용히 부드럽게 남의 눈에 띄지 않게  
 겸허한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.  
 굶픈 형제들을 기다렸다가  
 그들과 보조를 맞추어 함께 올라가게 해주시고  
 저 인내에 찬 조용한 파도의 승리를 나에게도 주소서.  
 물러설 적마다 그것이 전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 
 드맑은 물의 산뜻함이  
 내 얼굴에서 배어나게 해주십시오.  
 또 내 영혼에는  
 바위에 닿아 부서진 저 물거품의 순백함을 주시고  
 햇빛이 물결을 노래하듯  
 내 인생을 당신 빛으로 밝혀주소서.  
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여,  
 주님의 빛을 나에게만 비추지 마시고  
 내 곁의 사람들 모두가  
 당신의 영원한 은총에 흠뻑 젖게 하소서.

◀남편 십계명▶ 관심  
 평소의 아내의 옷차림과  
 외모에 관심을 가지는 것

◀아내 십계명▶ 관심  
 남편의 식성을 파악해  
 음식준비에 신경쓰는 것

